

간호대학생의 부모-자녀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

박민희* · 임소연**

I. 서론

1. 연구의 필요성

인간의 생애발달주기에서 처음으로 부모와 자녀간의 의사소통을 형성하는 시기는 신생아기이고, 출생과 함께 울음, 웃음, 다양한 행동등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방법을 통하여 타인과의 신뢰감 및 정서적 교감뿐만 아니라 사회·정서적 능력을 갖추게 되는 기초 틀을 형성한다(Ha et al., 2013). 의사소통능력은 사회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언어 및 사고, 느낌, 생각 등을 전달하고, 이해하면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(Lim & Park, 2011). 청소년기는 13세에서 22세 까지로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자아정체감 형성 등 정서적인 혼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, 장래 진로 설정 및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려고 하기 때문에 빈번한 갈등과 의사소통의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(Ha et al., 2013). 그리고 우리나라 부모들은 성공적인 자녀미래를 인생의 가장 큰 성취중 하나로 생각하고 자녀의 학업성적과 진로문제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기 때문에(Kim,

Hong, & Yoon, 2005), 특히 청소년 시기의 부모-자녀의사소통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. 그러나 긍정적인 부모-자녀 의사소통은 인간관계 및 의사소통의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하고 자신의 정체성 형성과 직업관에 영향을 미치어(Jeon & Kim, 2013),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성하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데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. 최근의 부모-자녀 간의 의사소통과 관련된 연구경향을 살펴보면 자아효능감 및 진로 결정과의 관계(Kim et al., 2005), 부모-자녀 의사소통, 자아분화, 자아존중감(Jeon & Kim, 2013) 등 연구결과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. 그러므로 간호대학생들의 부모-자녀 의사소통과 관련된 요인들을 확인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.

최근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서 간호영역은 대상자에게 끊임없이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자신감인 자기효능감을 필요로 한다. 자기효능감이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(Pender, 1987)이고, Fetzer (2003)는 자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자아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기가 부여된 상태라고

* 원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

** 백석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(교신저자 E-mail: ysybest@bu.ac.kr)

• Received: 8 May 2017 • Revised: 10 July 2017 • Accepted: 12 August 2017

• Address reprint requests to: Yim So Youn

Department of Nursing, Baekseok University

#76, Munam-ro, Dongnam-Gu, Gyeongsang, Chungnam, 31065, Korea

Tel: 82-41-550-0722 Fax: 82-41-550-2829 E-mail: ysybest@bu.ac.kr

정의하였다.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이 주어진 역할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어진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중요변수라고 본다(Kendal & Bloomfie, 2005). 자기효능감은 주로 청소년시기에 발달하고, 이 시기의 부모와의 긍정적인 의사소통은 청소년들의 자아효능감을 높이고(Ko & Chung, 2007), 특히 Kim과 Kim (2015)은 높은 자기효능감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.

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활동 과정,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 견해를 의미한다(Weis & Shank, 2000). 간호전문직관은 주로 대학교육과정을 받는 동안에 형성되기 시작하여(Ko & Chung, 2004), 확고히 확립된 간호전문직관은 취업을 앞둔 간호대학생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부분이다(Jun & Lee, 2016). 최근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과 관련된 영향요인에 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(Hwang & Shin, 2017), 긍정적인 부모-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학업 및 진로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하여 자신의 역할과 직업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(Jeon & Kim, 2013).

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부모-자녀간의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확인하고 상관관계를 파악하는 데 큰 의의를 두고, 부모-자녀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과 자기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 형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과정 및 학생상담방법을 모색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.

2. 연구 목적

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-자녀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함이며,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.

- 첫째, 대상자의 부모-자녀 의사소통, 자기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를 파악한다.
- 둘째,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-자녀 의사소통, 자기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차이를 파악한다.

- 셋째, 부모-자녀 의사소통 정도와 자기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.
- 넷째, 대상자의 자기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파악한다.

II. 연구 방법

1. 연구 설계

본 연구는 간호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-자녀 의사소통 정도와 자기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.

2. 연구 대상

본 연구의 대상은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남지역에 위치한 B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1) 간호대학에 현재 재학 중이고, 2) 간호학개론 교과목을 수강하고 임상실습경험이 없는 간호학과 2학년 학생, 3)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한 자에 한 한다.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*power program 3.19에 의해 산출하였다. 다중선형회귀분석(Linear multiple regression)을 기준으로 예측변인의 수가 2개일 때, 검정력 .90을 유지하도록 하고, 효과크기는 중간수준인 .15로 하고, 유의수준은 .05으로 설정하였을 때, 필요한 최소 표본수는 88명으로 나타나, 본 연구대상자인 106명은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.

3. 연구 도구

1) 부모-자녀 의사소통

부모-자녀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간의 감정, 생각, 태도를 통하여 상호간의 공통적 이해를 도모하고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과정으로(Pender, 1987), 본 연구에는 Bienvenu (1971)가 개발한 부모-자녀 의사소통 척도(Parent-Adolescent Communication Inventory Form B)를 Kim (1990)이 변안한 것을 사용하였다. 이 도구는 5점 Likert 척도의 40문항으로 26개의 긍정문항과 14개의 부정문항으로 구성되어

있다.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였으며, 측정 가능한 점수는 40점~2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-자녀 간의 의사소통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. 본 연구에서의 Cronbach's α 값은 .92 였다.

2) 자기효능감

자기효능감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요구되는 행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(Bandura, 1977), 본 연구에서는 Sherer 등(1983)에 의해 개발된 일반적 자기효능척도를 수정 보완한 Oh (1993)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된 점수를 말한다. 총 17문항의 Likert 5점 척도로 최저 17점에서 최고 85점이며,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. 본 연구에서 Cronbach's α 값은 .93 이었다.

3) 간호전문직관

간호전문직관은 전문직으로서 간호에 대한 체계화된 견해와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활동 과정, 그 직분 자체에 대한 직업 의식적 견해를 의미하며(Weis & Shank, 2000), 본 연구에서는 Yoon, Kweon과 An (2005)이 개발하여 Han, Kim과 Yoon (2008)이 수정 보완한 18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. 이 도구는 전문적 자아개념(6문항), 사회적 인식(5문항), 간호사의 전문성(3문항), 간호계의 역할(2문항), 간호의 독자성(2문항)의 하위영역으로 구분된다. 이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, 측정 가능한 점수는 5점~90점이며, 본 연구에서의 Cronbach's α 값은 .86 이었다.

4. 자료 수집

본 연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,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,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를 동의한 대상자에게 서면 연구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자가 보고식으로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. 설문 조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,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과 개인 정보의 비밀이 보장됨이 사전에 설명되었고, 설문조사를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선물이 제공되었다. 자료수집기간은 2016년 12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였으며,

수집된 총 106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.

5. 자료 분석 방법

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,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.

-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모-자녀 의사소통, 자기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은 빈도와 백분율,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.
-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-자녀 의사소통, 자기효능감, 간호전문직관은 t-test 또는 one-way ANOVA로 분석하였다.
- 대상자의 부모-자녀 의사소통 정도와, 자기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'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.
-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.

Ⅲ. 연구 결과

1.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

본 연구의 대상자는 총 106명으로 그 중 여학생이 96명(90.6%), 남학생이 10명(9.4%)이었으며, 평균 연령은 21.4세이었다.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59명(55.7%)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구성은 양부모형태의 가족이 100명(94.4%)으로 대부분이었다. 아버지 학력은 대졸이 53명(50.0%)으로 가장 많았으며, 어머니 학력은 고졸이하가 56명(52.8%)으로 가장 많았다. 부모 모두 직업이 있는 경우가 75명(70.8%)으로 가장 많았고, 부만 직업이 있는 경우가 25명(23.6%)으로 그 뒤를 이었다(Table 1).

2. 부모-자녀 의사소통, 자기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

연구 대상자의 부모-자녀 의사소통 정도는 최저 74점, 최대 185점으로 평균 146.53(\pm 20.15)점으로 나타났다. 자기효능감은 최저 43점, 최대 85점, 평균 61.98(\pm 9.20)점으로, 간호전문직관은 최저 46점, 최고

Table 1.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

(N=106)

Variables	n or Mean±SD	%
Ages (years)	21.36±1.05	
Sex		
Male	10	9.4
Female	96	90.6
Religion		
Yes	59	55.7
No	47	44.3
Family composition		
Foster family	100	94.4
Single-parent family	6	5.6
Father's education		
No answer	5	4.7
≤High school	44	41.5
College	53	50.0
≥Master	4	3.8
Mother's education		
No answer	1	0.9
≤High school	56	52.8
College	49	46.2
Father or Mother's employment		
All employed	75	70.8
All unemployed	3	2.8
Father only employed	25	23.6
Mother only employed	3	2.8

Table 2. Parent-Adolescent Communication, Self-Efficacy, and Nursing Professionalism (N=106)

Variables	No.	Range	Minimum	Maximum	Mean±SD
Parent-adolescent communication	40	40~200	74	185	146.53±20.15
Self-efficacy	17	17~85	43	85	61.98±9.20
Nursing professionalism	18	18~90	46	90	67.37±8.16

90점, 평균 67.37점(±8.16)으로 나타났다(Table 2).

3.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-자녀 의사소통, 자기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 차이

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부모-자녀 의사소통, 자기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 차이는 Table 3과 같다. 성별, 종교, 가족사항, 아버지 학력, 어머니 학력, 부모 직업 유무에 따른 부모-자녀 의사소통, 자기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

4. 부모-자녀 의사소통, 자기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

대상자의 부모-자녀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. 부모-자녀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($r=.44, p<.001$), 부모-자녀 의사소통과 간호전문직관($r=.30, p=.002$), 자기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($r=.42, p<.001$)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Table 3. Differences of Parent-Adolescent Communication, Self-Efficacy, and Nursing Professionalism by General Characteristics (N = 106)

Variables	Parent-adolescent communication			Self-efficacy			Nursing professionalism		
	Mean±SD	t or F	p	Mean±SD	t or F	p	Mean±SD	t or F	p
Sex									
Male	146.70±21.38	0.027	.979	61.70±7.78	-0.101	.920	67.60±8.60	0.900	.925
Female	146.51±20.13			62.01±9.38			67.34±8.15		
Religion									
Yes	148.97±20.10	1.402	.164	61.66±9.50	-0.400	.690	67.02±8.73	-0.495	.622
No	143.47±20.00			62.38±8.91			67.81±7.45		
Family composition									
Foster family	146.85±19.95	.669	.505	62.17±9.06	.861	.391	67.63±8.22	1.356	.178
Single-parent family	141.17±24.59			58.83±11.87			63.00±5.93		
Father's education									
No answer	137.40±25.48	0.952	.419	58.20±13.16	0.330	.804	62.00±6.04	1.350	.263
≤High school	148.73±18.41			62.07±8.70			66.43±8.02		
College	144.83±21.33			62.36±9.58			68.62±8.29		
≥Master	156.25±14.52			60.75±5.56			67.75±8.85		
Mother's education									
No answer	160.00	0.306	.737	62.00	0.097	.907	68.00	0.979	.379
≤High school	145.64±20.65			61.61±9.50			66.32±8.14		
College	147.27±19.85			62.41±9.03			68.55±8.18		
Parents's employment									
All employed	145.76±21.07	1.950	.126	61.87±8.73	0.701	.554	67.36±8.18	1.163	.328
All unemployed	127.33±20.31			55.00±14.42			61.33±4.73		
Father only employed	152.36±15.94			62.96±9.35			68.72±7.30		
Mother only employed	136.33±16.44			63.67±16.77			62.33±15.50		

Table 4. Correlation among Parent-Adolescent Communication, Self-Efficacy, and Nursing Professionalism

Variables	Self-efficacy	Nursing professionalism
	r(p)	r(p)
Parent-adolescent communication	.44(<.001)	.30(.002)
Self-efficacy		.42(<.001)

Table 5. Influencing Factors on Self-Efficacy

Variables	Self-efficacy					Tolerance	VIF
	B	SE	β	t	p		
(Constant)	14.295	7.442		1.921	.058		
Parent-adolescent communication	0.158	0.040	.347	3.989	<.001	.913	1.096
Nursing professionalism	0.363	0.098	.322	3.703	<.001	.913	1.096
Durbin-watson	1.775						
R ²	29.0						
Adjusted R ²	27.6						
F(p)	21.014(<.001)						

Table 6.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Professionalism

Variables	Nursing professionalism					Tolerance	VIF
	B	SE	β	t	p		
(Constant)	39.361	6.004		6.556	.000		
Parent-adolescent communication	.323	.087	.365	3.703	.000	.805	1.243
Self-efficacy	.054	.040	.134	1.361	.176	.805	1.243
Durbin-watson	1.882						
R ²	19.5						
Adjusted R ²	17.9						
F(p)	12.438(<.001)						

5.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영향요인

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부모-자녀 의사소통과 간호전문직관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 회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(Table 5). 부모-자녀 의사소통과 간호전문직관은 자기효능감을 29.0% 설명하고 있었으며, 이 중 부모-자녀 의사소통($t=3.989, p<.001$)과 간호전문직관($t=3.703, p<.001$)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.

본 모형은 Durbin-Watson 값이 1.775로 기준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있으므로 잔차들 간의 비상관성이 성립되어 회귀모형의 기본가정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, 공차한계가 .1이상이고 VIF가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

6. 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 영향요인

대상자의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간호전문직관을 종속변수로 하고 부모-자녀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(Table 6). 부모-자녀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은 간호전문직관을 19.5% 설명하고 있었으며, 이 중 부모-자녀 의사소통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($t=3.703, p<.001$).

본 모형은 Durbin-Watson 값이 1.882로 기준값인 2에 매우 근접하고 있으므로 잔차들 간의 비상관성이 성립되어 회귀모형의 기본가정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, 공차한계가 .1이상이고 VIF가 10이하이므로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.

IV. 논 의

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자아정체감 형성 등 정서심리적인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시기이고, 학업 성적 및 진로설정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겪게 되어 발달과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부모-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중요요인으로 보고되어지고 있다(Yoo & Cho, 2011). 또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-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신에 대한 자아상, 자기효능감 및 진로선택 및 과정에 영향을 준다(Kim et al., 2005). 그러므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부모-자녀간의 의사소통 정도와 자기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였으며,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.

첫째, 간호학과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-자녀간 의사소통 정도의 총 평균점수는 146.53점으로 중간이상이었으며, 간호대학생 2학년 학생으로 같은 원도구를 사용한 Jeon과 Kim (2013)의 142.78점과는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. 그리고 본 연구는 부모와 고등학생의 의사소통 정도를 측정한 Park과 Hong (1997)의 연구결과인 133.78점 보다 12.75점 높은 결과를 보여, 청소년의 나이가 어릴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 점수가 높았던 연구(Lee & Kim, 2001)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. 이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1,2학년 전공기초과목으로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술 등의 교과목을 이수한 영향이라고도 고려해볼 수 있다.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자아효능감 평균점수는 61.98점으로 Hyeon (2014)의 간호대학생 3,4학년인 고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. 대학생활동안의 자기효능감의 증진은 취업 후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이직률을 낮출 수 있는 근본 해결방안으로 교과프로그램을 통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(Park & Kim, 2016).

둘째, 일반적 특성인 성별, 종교, 가족사항, 아버지 학력, 어머니 학력, 부모 직업 유무에 따른 부모-자녀 의사소통, 자기효능감, 간호전문직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. 최근 Jeon과 Kim (2013)의 연구에서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령, 성별, 종교에 따른 부모-자녀 의사소통 정도의 차이는 없었으나, 일부 연구에서는 여학생들이 부모님과의 의사소통이 더 원활한 결과

를 보였다(Jung, Ryoo, & Shin, 2005). 간호대학생의 전문직관을 파악하는 연구(Ham & Kim, 2012)에서는 연령, 종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본 연구 결과와는 차이가 있지만, 동일한 척도로 분석한 연구결과가 미미하여 직접 결과를 비교하기에는 제한적이고 추후 연구를 필요로 한다.

셋째, 본 연구에서는 부모-자녀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, 부모-자녀 의사소통과 간호전문직관, 자기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Ko와 Chung (2007)의 연구에서 자녀-부모 의사소통이 높으면 가족기능이 높고, 이는 자기효능감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해 준다. 한편 부모-자녀 의사소통과 직접적으로 간호전문직관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결과는 지금까지 없으나, Ji (2014)의 연구에서는 가족 공감의 행동적 표현양식인 의사소통은 전문직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간호전문직관 확립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 본 연구결과를 일부 지지한다. 그리고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-자녀 의사소통정도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던 연구결과(Jeon & Kim, 2013)와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간호전문직관이 높았던 연구결과(Lee & Kim, 2013)는 본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 간주된다.

넷째, 본 연구에서 부모-자녀 의사소통과 간호전문직관은 자기효능감을 29.0%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Ko와 Chung (2007)의 연구에서 부모-자녀 의사소통은 청소년의 심리적 자아존중감을 발달 시켜주고 급격한 신체적, 심리적 변화의 갈등을 극복하여 자기효능감을 높여준 결과를 보여, 본 연구의 부모-자녀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을 설명한 결과를 일부 지지한다. 한편 Ham과 Kim (2012)의 연구에서 간호사 이미지, 전공만족도, 임상실습만족도, 자기효능감이 간호전문직관에 유의한 영향을 준 결과와 Han (2010)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임상간호사 역할을 수행할 때 대인관계에서 자기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 부분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.

또한, 부모-자녀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은 간호전문직관을 19.5%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, 자녀와 부모의 의사소통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의 지각을 높

이고 간호학의 정체성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견해인 간호전문직관을 형성하여 이후 신규간호사의 업무 수행능력과 직업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(Ham & Kim, 2012).

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가 임상실습경험이 없는 2학년 간호학과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, 추후연구에서는 학년별 특성에 따른 부모-자녀 의사소통 정도와 자기효능감 및 간호전문직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바란다.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과 부모간의 의사소통이 자기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의 영향요인으로 밝혀진바, 간호대학생의 부모와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증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, 진행해야 할 중요성을 제시할 수 있겠다. 자기효능감과 긍정적인 간호전문직관은 취업이후의 병원 조직에 적응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임을 감안한다면 학부차원에서 부모-자녀 의사소통 증진 방안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.

V. 결 론

본 연구는 충청지역 대학에 재학 중인 2학년 간호학과 학생 106명을 대상으로 부모-자녀 의사소통, 자기효능감, 간호전문직관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. 연구결과로는 부모-자녀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, 부모-자녀 의사소통과 간호전문직관, 자기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 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. 부모-자녀 의사소통과 간호전문직관은 자기효능감을 29.0% 설명하고 있었으며,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. 그리고 부모-자녀 의사소통과 자기효능감은 간호전문직관을 19.5% 설명하고 있었으며, 이 중 부모-자녀 의사소통이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주는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.

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효과적인 간호대학생의 부모-자녀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연구를 제안하고, 대학에서 간호교육과정 및 비교과과정에서 자기효능감과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제도 및 영향력을 분석하는 연구를 기대한다.

References

- Bandura, A. (1977). Self-efficacy: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. *Psychological Review*, 84(2), 191-215.
- Bienvenu, M. J. (1971). A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ventory. *The Journal of Communication*, 21(4), 344-345.
- Fetzer, S. J. (2003). Professionalism of associate degree nurses: the role of self-actualization. *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*, 24(3), 139-143.
- Ha, Y. S., Lee, J. Y., Kim, H. S., Park, Y. H., Moon, S. Y., Kim, S. J., et al. (2013). *Child health nursing* (3rd ed.). Seoul: Shinkwangpub.
- Ham, Y. S., & Kim, H. S. (2012). Comparison of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nticipating graduation according to nursing educational system. *Journal of Korean Academic Fundamentals of Nursing*, 19(3), 363-373.
- Han, S. J. (2010). Clinical nurses's interpersonal relationship, self-efficacy, professionalism. *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*, 10, 216-216.
- Han, S. S., Kim, M. H., & Yoon, E. K. (2008).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ism. *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*, 14(1), 73-79.
- Hwang, E. H., & Shin, S. J. (2017). Factors impacting nursing professionalism among nursing students. *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*, 31(1), 97-108.
- Hyeon, Y. H. (2014). *The relationship among self-efficacy, attitude of patient safety, and safety care performance, in nursing students*. Unpublished Master's thesis, Kemyung University, Daegu.
- Jeon, M. K., & Kim, M. S. (2013). A Study on relationships among parent-adolescent communication, self differentiation, self

- esteem, life stress in nursing department students. *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& Management*, 11(4), 293-302.
- Ji, E. J. (2014). Influence of nursing professionalism, empathic ability on communication ability in senior nursing student. *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*, 16(3), 1685-1697.
- Jun, W. H., & Lee, K. L. (2016). The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and gratitude disposition on the happiness in senior nursing students. *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*, 30(3), 434-444.
- Jung, Y. H., Ryoo, J. S., & Shin, H. S. (2005). Parent-adolescent communication variables o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focusing on the high school students in Jeonnam. *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Practical Arts education*, 17(2), 145-158.
- Kendal, S., & Bloomfield, L. (2005). Developing and validating a tool to measure parenting self-efficiency. *Journal of Advanced Nursing*, 51(2), 174-181.
- Kim, H. S., Hong, S. H., & Yoon, E. J. (2005).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-adolescent communication, self-efficacy, and career decision in adolescents. *Studies on Korean Youth*, 16(2), 37-65.
- Kim, J. Y. (1990). *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the self-differentiation and parent-adolescent communication in adolescent*. Unpublished master's thesis, Dong-A University, Pusan.
- Kim, S. O., & Kim, S. M. (2015). Effect of attribution disposition and self-efficacy on clinical practice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. *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*, 29(3), 452-462.
- Ko, K. A., & Chung, M. J. (2007). Family functioning, communication, and adolescent self-efficacy. *Korean Journal of Family Therapy*, 15(2), 301-320.
- Ko, S. H., & Chung, B. Y. (2004). Nursing professionalism and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general hospital. *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*, 10(3), 335-344.
- Lee, E. K., & Kim, O. H. (2013). Comparison among nursing professional values, self-esteem and social support by gender of nursing students. *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*, 15(4), 2135-2148.
- Lee, Y. S., & Kim, J. O. (2001). The effect of parent-adolescent communication types on their psychological well-being. *Journal of Family Relations*, 7(2), 133-159.
- Lim, M. H., & Park, Y. J. (2011). A study on the communicational ability and emotional development of infants in relation to the infants's characteristics variables and maternal characteristics variables. *Korean Journal of Child Education and Care*, 14(1), 5-13.
- Oh, H. S. (1993). Health promoting behavior and quality of life of Korean woman with arthritis. *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*, 23(4), 617-630.
- Park, H. H., & Kim, S. H. (2016). The influence of academic self-efficacy and resilience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. *Journal of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*, 10(6), 369-378.
- Park, J. H., & Hong, K. J. (1997). The effects of AP/Teens programs on the juvenile delinquents' family communication and their family functioning. *Korean Counselling Association*, 8(1), 121-138.
- Pender, N. (1987). *Health promotion in nursing practice*. Norwalk, CT: Appleton-Century-Crofts.

Sherer, M., & Adams, C. H. (1983). Construct validation of the self-efficacy scale. *Psychological Report, 53*(3), 899-902.

Weis, D., & Shank, M. J. (2000). An instrument to measure professional nursing values. *Journal of Nursing Scholarship, 32*(2), 201

-204.

Yoon, E. J., Kweon, Y. M., & An, O. H. (2005). Development of a nursing professional value scale. *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, 35*(6), 1091-1100.

ABSTRACT

Association among Parent-Adolescent Communication, Self-Efficacy,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

Park, Min Hee (Associate Professor, Department of Nursing, Wonkwang University)

Yim, So Youn (Assistant Professor, Department of Nursing, Baekseok University)

Purpose: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descriptive research to identify relationships among parent-adolescent communication, self-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. **Methods:** The participants were 106 nursing college students in Chungchung Province in Korea. Data were collected from December 1 to 31, 2016,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, t-tests, ANOVA, Pearson's correlation coefficient,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1. **Results:** Parent-adolescent communic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-efficacy ($r=.44, p<.001$), and nursing professionalism ($r=.30, p=.002$), while self-efficacy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nursing professionalism ($r=.42, p<.001$). Parent-adolescent communication and nursing professionalism explained 29.0% of self-efficacy. Parent-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elf-efficacy explained 19.5% of nursing professionalism. **Conclusion:**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an empowerment program of parent-adolescent communication should be developed to provide valuable baseline data to counsel students who are developing self-efficacy and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curriculum.

Key words : Parent, Communication, Self-efficacy, Nursing, Professionalism